

세계의 국립자연사박물관 ①

고수준의 전시로 일대革新이룩한 英國국립自然史박물관



李炳勛

(국립자연사박물관 설립추진위원회
상임위원장, 전북대교수)

文太暎

(고려대부설 한국곤충연구소 연구원)

○ 세계 자연사박물관 연재에 앞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의 「환경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환경을 떠나서는 정치도, 군사도 경제도 논할 수 없게 된 복잡한 환경문제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곧 인류가 처음으로 불(火)과 도구를 발견한 이후 엔진과 원자력의 개발에 이른 지금까지 삶의 바탕인 환경으로서의 자연을 무참히 파괴하고 소모했을 뿐 아니라 각종 오염과 폐기물이 넘쳐 미래세대는 물론 당장의 삶도 유지하기 어려울 위급한 상황으로 응징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일로 심해져가는 환경오염에 따라 급속히 사라져가는 생물들을 하나라도 더 건져 우리 후세가 이 지구상에 어떠한 생물들이 살았고 그들의 조상들은 이러한 환경속에서 어떻게 느끼고, 활동하고, 대응했는지 그래서 어떠한 문화를 이루고, 어떤 민족정서를 키워 왔는지를 연구하고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이것은 곧 오늘의 인간과 국가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 지역의 자연과 갖은 상호

작용의 결과로서 엄연한 역사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발달의 바탕과 기본이 되는 자연에 대한 탐구는 아무리 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것은 곧 인간의 知的 호기심에서는 물론 인간의 생존을 보장할 물리적인 재료와 정신적인 지혜를 얻기 위해 필요한 일이며, 나아가 우주 속의 인간은 과연 무엇인가를 묻는 진정한 自我발견을 위해서도 해야 할 일이다.

따라서 많은 나라들이 그 나라의 자연을 연구하는 중심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해오고 있다. 그것은 곧 다름아닌 自然史博物館이다. 사실상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자연사박물관은 모두 列強들이 주로 그들의 식민지로부터 엄청난 수의 생물 및 광물표본들을 수집해 이룩된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 학자들도 우리나라 고유의 생물을 연구하면서도 외국의 자연사박물관에 가보아야 하는 경우가 많게 되었다. 그러면 이것을 단지 시대적인 정치산물로만 보아야 할 것인가? 결과적으로 그들은 분명 오늘의 우리보다 탁월한 과학과 기술을 이룩했고 더 높은 생활수준을

영위하고 있으며 인류의 미래발전을 위한 창의력을 보다 풍부하게 잠재시키고 있다. 이것은 왕성한 탐구활동과 함께 자료와 정보의 축적을 통해서만 가능한 결과였으며 그들의 자연사박물관의 성립도 그러한 관점에서 보는 것이 온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간 과연 무엇을 하였는가? 세계에는 자연사박물관이 약 6,000여개 정도 운영되고 있다. 그 가운데 미국이 약 400개,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이 각각 200여개씩, 그리고 캐나다에 100여개가 있어 마치 국력의 척도가 되는 듯 하다. 그러나 루마니아, 브라질, 쿠바에도 60여개씩이나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몇군데 대학부설의 소규모 자연사박물관 외에는 국립자연사박물관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민간 자연사박물관이 하나도 없다. 이 사실은 자연이 파괴되고 생물이 사라져가도 이른바 이 「錦繡江山」이 과연 어떻게 형성되어 온 것인지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없다는 뜻이고, 우리의 자연사로서의 생물과 광물등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 연구하는 국립자연사박물관이 없다는 뜻이다. 그래도 우리는 올림픽을 치른 나라, 스포츠 세계 7위인 나라, 앞으로 10년안에 기술선진 7개국 안에 들겠다고 야심에 찬 나라의 국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자기나라의 역사와 족적을 보존하고 연구할 줄 모르는 국민이란 외국 지식인들의 냉소를 우리는 과연 느끼지 못하고 있는가?

이러한 한심한 실정에 분개한 국내의 26개 학회인사들은 1990년 2월에 국립자연사박물관 설립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그해 9월과 작년 9월 두차례에 걸쳐 심포지움을 개최함으로써 그 필요성과 외국에서의 동향을 토의하고 그 설립을 시급히 서두를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정부요로에 전달한 바 있다. 이러한 활동은 언론계의 호응을 얻어 각종 보도매체를 통해 국민에게 홍보되기도 했다.

한편, 文化部는 이러한 학계의 여론에 따라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용산의 미군기지 철수후 그 곳에 설립할 예정이라고 1991년과 1992년 봄에

각각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 준비작업을 위한 최소한의 재정도 번번히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였다. 결국 이른바 당장에 화급한 다른 사업예산으로 인해 국립자연사박물관설립을 위한 예산신청은 언제나 무산된 것이다. 이에 국립자연사박물관 설립추진위원회는 이 박물관의 필요성이 좀 더 홍보되고 설명되어야겠다는 생각에서 본란을 통해 세계의 저명한 자연사박물관의 역할과 기능을 연재 기술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 박물관들이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도전과 사명, 그리고 그에 따르는 변화 등을 함께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시리즈중 런던 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는 지난 여름 6월10일~20일사이 현재 방문한 바를 기술하고자 한다.

○ 자연사박물관이란 무엇인가?

바로 자연속에 있는 동물, 식물, 광물 그리고 생태계와 인간의 과거와 현재에 관계된 표본을 수집하고 연구하여 지식을 늘리고 그 결과를 전시와 여러가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이 쉽게 학습하게 하는 기관이다. 즉, 자연에 대한 학술연구와 대중교육을 위한 市民大學인 것이다. 그래서 한 나라의 국민은 그 나라의 자연이 나타내는 과학적인 원리, 유형, 특징을 알아내고 개성과 특유의 가치를 끌어냄으로써 그 나라의 독특한 자연에 대한 인식과 나아가서 국민적 자부심을 싹 틔울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이며 국민교육의 목적이 외에도 자연보존을 위한 천연보호지구 설정, 멸종위기생물의 파악과 회복 그리고 遺傳資源으로서의 갖가지 野生種의 유지와 환경변화 탐지등 생태계의 유지와 활용에 기여할 작업을 하는 곳이며 有用鑛物의 연구와 유전공학적 技法을 통해 실생활과 산업발전에 쓰일 자료를 직접 제공하기도 한다.

자연사박물관에 따라 개성과 중점분야가 다를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참고로 미국 시카고에 있는 유명한 필드자연사박물관에서 내건 존립목적을 보면 '자연의 역사에 대한 지식을 보존,

증대, 보급하며 국민 개개인이 자연의 역사가 주는 지식과 기쁨을 보다 많이 누릴 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 따라서 이 자연사박물관의 주요 관심은 과거와 현재에 존재했거나 존재하는 인간과 인간이외의 모든 생물과 그들의 진화에 있으며 아울러 지구와 이웃 행성들의 구성과 진화에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 활용하기 위해 첫째, 관심분야의 표본을 수집, 보관하고 둘째, 연구원들이 주로 이 표본들을 연구하여 독창적인 논문을 발표하는 것을 도우며 셋째, 일반인과 유치원에서 대학원에 이르는 모든 학생들에게 전시, 강의와 기타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하는 곳임을 밝히고 있다.

○ 영국의 국립자연사박물관(The Natural History Museum, London)

영국의 수도 런던에 위치하고 있는 국립자연사박물관(구 대영박물관)은 동물, 식물, 곤충, 지질부등 6개 연구부와 4개 지원분야에 860명이 연간 약 1천3백만 파운드(£)의 예산으로 연구, 전시, 교육활동을 하며 6천6백만 점의 표본

을 보존, 관리하고 있다. 관람자수는 연평균 3백30만 명으로 그 가운데 외국관광객이 약 1/4이다.

이 박물관은 순수연구와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응용연구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자연계는 엄청나게 다양한 반면, 연구자원은 제한되어 있으므로 모든 생물과 광물을 모두 취급할 수는 없다. 따라서 참고 표본들의 수집상태와 연구진의 전문성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되며, 이때 주제의 질과 時宜性, 실제문제에 대한 관련 정도가 결정기준이 된다. 이밖에 일반인을 위하여 주로 전시를 통해 자연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그러나 일반인은 대개 생물학과 지질학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으므로 전시의 대상을 일단 '非傳門的 관심인사'에 둔다. 이밖에 각급학교 학생들이 단체로 많이 방문하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이 박물관 방문이 유익하게 되도록 배려하고 있다.

다른 한편, 전문성있는 성인들에 대해서는 강좌, 야외답사 또는 보다 자세한 전시로서 그들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하도록 조치한다. 그러나 방문자들에게 방문관 관람은 대개 여가활동의 의미를 가지므로 전시실, 안내, 식당, 매점 등 여러가지 편의시설과 주위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제 위와 같은 임무와 수행조건에서 이 박물관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를 알아보기로 한다.

1. 목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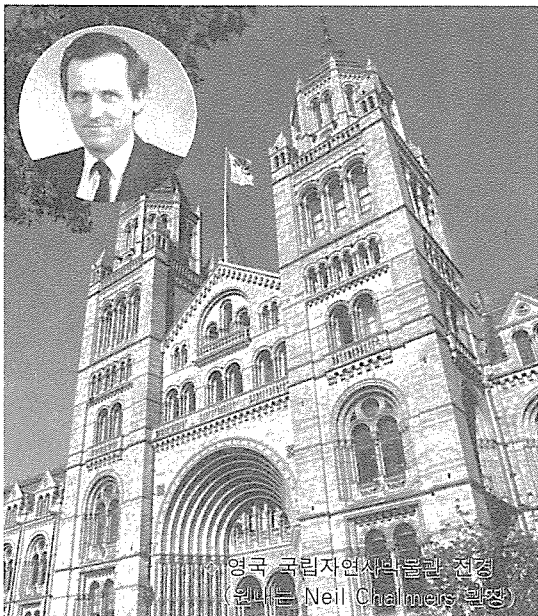
1) 과학연구

표본을 수집하고 관리하며 자문에 응하는데 대한 효율적 방법을 개발한다. 분류학에 관계되고 현재의 일반적 필요와 사회문제에 관계되는 연구를 수행한다.

2) 전 시

전시실을 개선하고 최신 주제에 대한 영구 전시를 일반인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갖춰 나간다.

3) 교 육



국가교과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연사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

4) 방문자 관리

방문자보호와 안내를 개선하고 방문자를 위한 환경과 시설을 향상시킨다.

2. 연구 주제

이러한 목표와 취지에 따라 과학연구사업으로 다음 주제들이 설정되어 집중 연구되고 있다.

1) 생물다양성(Biodiversity)

지구상의 생물다양성을 이해하고 그 의의를 파악하는 일은 현대생물학의 가장 큰 도전의 하나이며 자연자원의 관리와 보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일이다. 따라서 연구원들은 열대우림, 해저생물군집, 육상생물 등을 세계 또는 지역적인 수준에서 연구하여 생물종 및 생태계의 유형과 분포를 파악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의 보존 기술과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2) 환경평가(Environmental Quality)

환경문제는 오늘날 공기와 물의 오염, 지구 온난화, 오존층 파괴, 열대우림 파괴 그리고 인구과잉 등으로 인해 일상적인 문제가 되었으며 일반대중은 정부에게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생물가운데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민감한 종들이 있어 종다양성의 변화를 기록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이러한 작업에 관하여 이 박물관은 이미 참고표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지표종을 확인하는 작업에 도움이 되고 연구원들은 이 분류학적 전문지식으로 적절한 연구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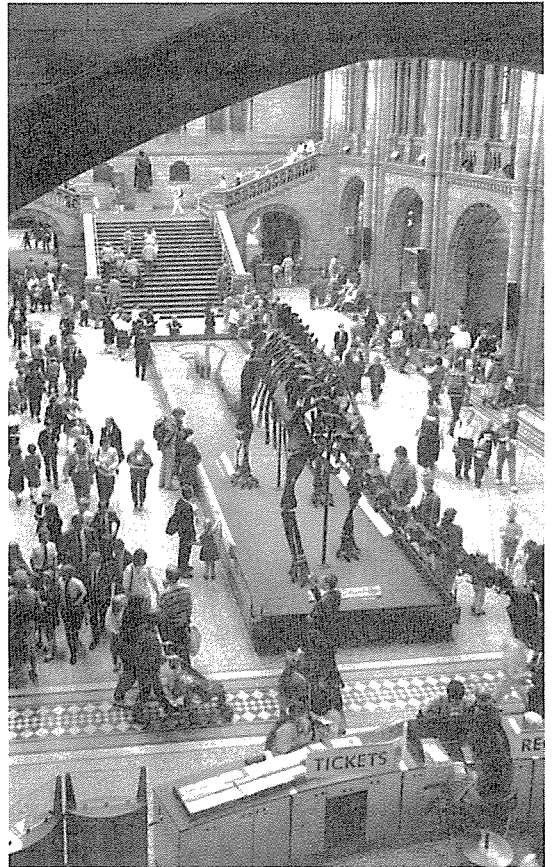
3) 생물자원(Living Resources)

식품, 의류, 의약품, 건축자재 그리고 종이와 고무 등 많은 생활필수품이 여러가지 생물로부터 생산된다. 이러한 생물자원들을 고갈시키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이용하려면 종들의 성질과 개체군 및 생물학에 대해 충분히 알고 여기에 관련된 해충이나 기생충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 박물관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생물들을 분류학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특히 어류, 삼림의 나무들과 재배곡물 및 가축의 해

충과 기생충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4) 광물자원(Mineral Resources)

광물자원에는 한계가 있으며 현재의 소모율은 앞으로 수십년내에 고갈될 위험에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광물과 이들 광물을 형성하는 자연적인 과정에 대해 철저히 이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광물의 구조와 성질을 알게 되면 광물을 인공적으로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산업적으로도 크게 활용할 수 있고 또 자연광물을 보전하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에 이 박물관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걸음 나아가 이러한 광물형성을 가능케 했던 古氣候환경도 함께 연구하고 있다.



◇ 현관에 들어서면 나타나는 Main Hall의 상징전시물인 「공룡의 전시」

5) 인간의 건강(Human Health)

여러가지 생물은 인간과 가축의 질병을 일으키기도 한다. 또한 기생충들은 매개충을 따라 사람사이를 오가는데 이러한 기생충과 매개충을 제거하려면 이들에 대한 생물학과 기타 여러가지 疫學的 현상을 알아야 한다. 이 박물관의 연구원들은 병원성 기생충과 매개충을 동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이 박물관에 3개 연구센터를 설치하고 연구원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지구상의 질병퇴치에 노력하고 있다.

6) 인간의 기원

우리는 인간의 기원과 생존에 대해 여러가지로 흥미를 느끼고 있다.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환경은 인류의 변화를 유도한 강력한 추진자였으며 따라서 이러한 인간의 본성에 대해 좀더 파악해야 한다. 이 박물관의 연구원들은 인간의 진화에서 환경이 발휘한 역할에 대해 연구하며 인간이 유인원으로부터 어떻게 분리되었는가에 대한 통찰을 발전시키고 있다. 따라서 직립보행, 도구제조, 두뇌의 변화, 현대인의 기원과 다양성 따위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방향의 조정과 대전환은 제도적인 혁신과 이에 따른 진통없이 이뤄질 수 없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개념, 구조, 기능등 전반적인 면에서의 변화가 일어났다.

1) 박물관 문화의 변화

오래 전통과 권위로 自然史博物館의 전형적인 모델이 되어 온 英國의 自然史博物館(The Natural History Museum)은 1987년과 1989년 사이에 박물관의 개념과 역할을 혁신적으로 쇄신하여, 과거 보수적 태도를 버리고 대중에게 비치는 대외적인 모습은 물론 내부적으로도 다양한 면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했다. 즉, 급변하는 동적인 현대사회가 정적인 박물관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박물관은 어떤 행태로 존재해야 그 요구를 충족시키며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특히 예술품을 소장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채집품을 소장한다는데서 대중이 가지는

선입견을 뛰어 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도 했다.

이들의 박물관 운영에 관련된 재정상황을 살펴보면 그 조직과 경영체제를 현대적으로 바꾼 목적이 더 확실히 파악되어 질 수 있다. 이 시기에 세계적인 불경기로부터 영국도 제외되지는 않아서 정부로 부터의 지원금은 매우 축소되었다. 따라서 박물관은 더 이상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현대적 박물관이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나 이들은 어려운 재정아래에서 박물관의 존립만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같이 국제적으로 주도적인 위치를 유지하는 성공적인 박물관의 운영을 계속하려는 노력을 벌였고 그 작업은 논리적이고 단계적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영국 국내외의 대중과 전문가들이 현재와 미래에 박물관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 그 요구를 충족하는 것부터 시도되었다. 사실상 유럽, 특히 영국의 박물관들은 대부분은 부유한 독지가의 지원으로 설립 유지되었고 후에 일부가 정부로 기증되거나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되어 왔으므로 “박물관은 박물관이어서 존재한다”는 전통과 보수적 사고가 지배적이어서 권위있는 학자들이 독자적인 연구를 하고 그 지식이 필요한 사람이 방문하여 상의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개념이었다. 방문자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참신한 기획과 시각적 전시, 그리고 박물관 자체가 그동안 보유한 잠재적인 능력, 즉 기존의 표본들에서 얻을 수 있는 방대한 정보와 고도로 교육된 전문가들의 능력을 이용해 산학협동과 대학원 교육에 적극 참여를 통해 경제적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계획이 도입되었다. 이런 계획은 과거와 같이 수동적인 과학자들만으로는 불가능하므로 이를 지원할 재정과 시설의 관리, 경영, 기획, 상업 계획과 이를 시행할 부서들에 관련 전문가들이 고용되어 조직되었고, 이렇게 경영의 전문화가 심화됨에 따라 자체기금 조성활동도 활발해졌다. 1987년부터 1989년말까지 3년간의 박물관의 재정보고서에 의하면 정부의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자체 능력으로 만든 수입은 전체 재정의 20%

수준까지 이른 것으로 되어 있다.

2) 소속 정부부서의 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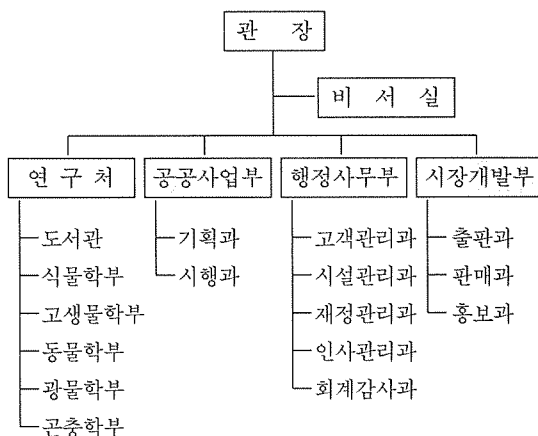
이 시기에 이 박물관을 감독 및 관할하는 정부부서가, 외부에서 지원금을 모금하는 것을 탐탁해 하지 않던 교육과학부(Department of Education & Science)로부터 모금활동을 사실상 관례로 하고 있어 모금행위에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국가유산부(Ministry of National Heritage)로 이관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동시에 영국내의 박물관으로서 처음으로 왕실에서 상징적인 후원자를 얻어 다 이애너 왕세자비가 박물관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대변하며 “다음 세대를 위한 박물관”을 계속 유지하도록 지원하자는 호소를 각계에 보내어 기금 모금을 돕고 있다. 박물관 관장에는 국립개방대학교의 이과대학장을 지닌 동물학자인 Neil Chalmers 박사가 경영능력을 인정받아 영입되었다. 이에 따라 나름대로의 전통을 지켜오던 각 부서들에도 자연히 생존과 발전을 위한 여러 변화가 생겼다.

3) 박물관 조직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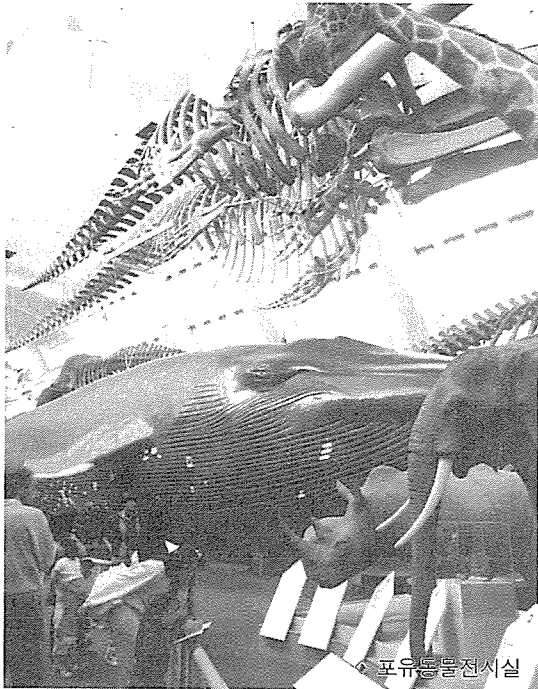
특히 이 동안 별도의 독립된 기관이던 지질 박물관(Geological Museum)이 자연사박물관에 흡수되면서 각각 명성을 누리던 두 박물관의 인력과 소장품들이 합쳐져서 그야말로 세계 최대의 자연사박물관이 된 것이다. 사실상 현재 사용되고 있는 Natural History Museum이란 박물관명칭도 British Museum(Natural History)와 Geological Museum이 합쳐지면서 새로 만든 명칭이다. 표1에서 정리했듯이 학술부서들이 종합과학적인 방향으로 유기적인 관계로 연결된 반면 경영과 대중교육 및 홍보에 관련된 여러 분야들이 전문부서로 분리 독립되었다. 따라서 생물통계과, 전산정보처리과, 전자현미경실, 출판과, 사진과, 기술지원과가 포함되어 있던 중앙지원부(Department of Central Services)가 해체되고 여러 부서로 이관되거나 독립되어

더 전문화되었다. 학술부(Department of Sciences) 이외에 공공사업부(Department of Public Services), 행정업무부(Department of Administrative Services), 시장개발부(Department of Marketing & Development)들이 전문가들로 조직되면서 1987년 이전과는 현저히 다르게 생동감있는 현실 참여를 진행시키고 있다.

표1. 영국 자연사박물관의 행정조직 (1992년 8월 현재)



이 새로운 구성이후 이 박물관이 첫번째로 시도한 사회참여사업은 우선 Birmingham에 있는 국립전시관에 「Techmart」라고 하는 미래형 기술이 집약된 전시였는데, 대학과 연구단체 및 기업들의 협력을 받아 박물관의 연구진들이 처음으로 외부의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성공시킨 대규모사업이었다. 이어 이 박물관 자체적으로 1988년에 성공적으로 구성한 「Chinese Dinosaurs」 전시에 이어 현재 「Dinosaurs Live」라는 대규모 공룡전시를 하고 있는데 이 또한 고전적인 공룡화석의 나열보다는 동적인 로봇공룡과 시뮬레이션 등을 이용해 현대과학기술이 집약된 전시를 시도하여 지금까지 밝혀진 공룡의 생태와 진화를 대중이 흥미를 갖고 생생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한 기획으로 꾸미고 있다. 이외에 반영구적인 전시로 영국근해



포유동물전시실

의 석유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보여주는 「Britain's Offshore Oil and Gas」, 흔히 재미없다고 느낄 절지동물들의 모든 것을 다양한 색상과 구조를 곁들여 흥미롭게 구성한 「Creepy Crawlies」, 1977년에 일단 전시되었던 주제를 재구성하고 방문객이 전시에 직접 참여해서 자신을 실험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사용하여 관심도를 높인 「Hall of Human Biology」 등이 있고, 단기전시로 호주발견 이백주년을 기념하여 식물학자 Joseph Bank와 Captain Cook의 역사적 활동과 채집품을 보여주는 「First Impression」 등이 완성되어 전시되고 있다. 이런 전시들은 학술부가 아무리 방대한 지적자산을 갖고 있어도 공공사업부의 전문기획능력과 시장개발부의 전문홍보활동이 없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걸작 전시들이었다.

4) 연구활동의 변화

이런 전환점에서 사실상 가장 진통을 겪고 개념과 자세의 근본적인 혁신이 요구되었던 부서는 연구부와 도서관이었다. 우선 연구진들의 전

문 지식을 상품화시킨다는 사실부터 보수적이라기보다는 전통적 개념에 충실한 대부분의 연구진들에게는 수공하기 쉬운 일이 아니었고, 수백년간 출간된 방대한 전문도서들을 소장하고 있는 도서를 전산정보화해서 정보시장에 활용한다는 것은 아무리 정리가 어느 정도 이미 되어있는 상태라고 하지만 이를 수행화하는데는 전문적 인력이 요구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황은 분명히 그외의 방법으로는 박물관이 차세대에도 현재와 같은 위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고사하고 심지어 존재할 가능성조차도 희박한 것이 사실이었으므로 오히려 학자들은 엄연한 현실적 요구를 수용할 기회를 부여받은 셈이었다.

결과적으로 현재 연구진들은 상기한 공공사업부의 기획사업 외에 각자의 연구대상의 범위를 다양화시키고 보유한 지식을 활용하는데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그간 이 박물관의 대표적인 학술사업으로는 주로 熱帶雨林地의 동식물 다양성과 深海低樓環境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연구 결과는 현재 전세계의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 중의 하나로 다루어지는 생물다양성 문제를 거의 주도해 나가는 과학적 바탕이 되고 있다. 한편 세부적인 연구활동 중 장기계획으로는 저술과 학회활동을 통한 세계분류학자들과의 교류, Molecular Markers나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같은 분자생물학 기술과 전통분류와의 접목을 시도하는 Experimental Taxonomy Division의 설립, British Petrol이 주로 지원하는 석유나 가스 보존층 탐사에 대한 조언이나 전문가 파견같은 학술자문활동, 그리고 이 박물관의 가장 큰 문제인 정확히 동정된 것만 6천7백만 점이 넘는 표본의 관리 등이 있고, 단기계획으로는 London 교외인 Spitalfield에서 발굴한 1,000여점의 18세기 골격들을 동정하는 「Spitalfield Project」, 127개국에서 300명이 넘는 연구진이 참여하여 中美 지역의 식물상조사 주도권을 목표로 한 「Flora Mesoamericana」, 그리고 WHO, USAID, Pan

표2. 92~97년간의 주요 전시발전계획

전시계획	전시기간	92~93	93~94	94~95	95~96	96~97
Plant (식물)		_____				
Primates (영장류)		_____				
Natural History Wonders (놀라운 자연)		_____				
Lasting Impressions (영원한 인상)		_____				
Time Machine (시간여행)		_____				
Minerals & Gems (광석과 보석)			_____			
Earth Gallery Wonders (지구의 신비)			_____			
Useful Earth (유용한 지구)			_____	_____		
Birds (조류)					_____	
Story of the Earth(지구의 역사)						_____

American Health Organization과 British Council의 지원을 받아 열대풍토병 연구를 국제적으로 주도하는 「Medical Initiatives」, Mersey灣의 공해를 조절하는 「Coming Clean in the Mersey」, 세계에서 자연사에 관한 가장 방대한 자료를 가진 도서관의 대략적 정리같은 단기적 사업등이 박물관 전체 연구진이 참여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많은 연구팀별 장단기 연구활동은 소개를 생략한다.

5) 남은 문제와 향후의 대처방안

87~89년동안 이런 노력과 활동을 바탕으로 박물관의 현재 활동목표를 “높은 수준의 전시, 교육 및 연구를 통해 자연계의 신비를 이해하는데” 두고 1990부터 5개년간의 운영계획을 구상하였다. 그리고 자연사박물관발전이사회(The Natural History Museum Development Trust)가 구성되어 5백만 파운드(£)의 기금을 영국내에서 91년말까지 조성했고 92~93년도에 1천만 파운드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곧 British Museum(Natural History) International Foundation을 미국에 설립하여 국제적인 사업을 위한 기금지원을 미국기업과 시민들로부터 받으려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90~91년 학기년도동안 213,071명의 국민학생과 중고등학생 방문객들이 있었는데 이 중 98%는 사전에 협조요청으로 박물관 견학수업을 받았다. 또 이 박물관은 교육부에 의해 국가적으로 제시한 교육과정에 맞는 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들이 방문시 학교수업과 연관시킬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인솔교사와 참가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속 보완될 예정이고, 92년부터 240,000명의 어린이 방문객을 받고 이중 99%를 사전 약속에 의해 견학시키고 지도할 계획이다. 한편 성인들을 위한 교육도 런던 대학교와 공동으로 실내외 지도 및 장단기 합숙 교육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92~97년 사이의 전시계획은 약 20년을 주기로 해마다 약 1,000㎡ 상당의 전시면적을 바꾸는 장단기 전시계획으로서 현재까지 약 900㎡의 면적을 활용하는 전시계획이 세워져 표2와 같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은 모두 단순한 배열형식이 아닌 동적이고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현대적 전시로 계획되고 있다.

이와 같이 여러가지 큰 변화를 일으킨 영국 국립자연사박물관은 새로운 시대적 요구와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여 경영, 연구, 전시 면에서 일대 혁신을 이룩하였고, 현재 국제적으로 자연사박물관의 경영과 역할에 큰 물결을 일으키고 있다.